

한다 봄 축제

한다 봄 축제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1755년에 열렸던 소박한 수레 행렬과 꼭두각시 인형극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다는 늘 북적이는 항구 도시이자 주로 에도(지금의 도쿄)로 운송되는 사케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1800년대 초까지 한다의 상인들과 양조업자들은 큰 부를 쌓았고, 풍작을 기원하는 지역의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 봄 축제를 위해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크고 화려한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다 봄 축제는 한다에서 열리는 여러 봄 축제를 아우르는 행사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총 31대의 수레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작은 수레의 무게는 4톤이며, 가장 큰 수레는 무게 6톤에 높이가 7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수레에는 꽃이나 새, 신화 속 생물들의 문양을 수놓은 태피스트리를 걸어 장식하는데, 이러한 문양은 수 세기에 걸쳐 점점 더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및 중국의 전설과 역사 속 장면을 재현한 조각 장식과 부조 등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20대의 수레 위에서는 인형극이 펼쳐지며, 축제 음악과 창(唱), 세 개의 줄이 달린 일본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과 한국의 비파와 유사한 일본 전통 현악기인 ‘비와’의 선율이 흥을 돋웁니다.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한다 내 10개 지구의 거리 곳곳에서 이 수레들이 여러 대씩 무리 지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마을의 참가자들은 고유한 디자인이자 일본 축제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인 핫피를 입고, 피리와 북으로 저마다 특색 있는 축제 음악을 연주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메자키 썰물 축제는 5월 3일과 4일에 개최되는데, 그 광경이 압권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가 되면 다섯 대의 수레를 해변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기원전 7세기 진무 천황이 일본 동방 원정에 나섰을 당시 상륙했던 지점이라고 전해집니다.

축제가 끝나면 한다시립박물관에 전시되는 수레를 제외한 나머지 수레는 해체하여 창고에 보관합니다. 5년마다 가을에 열리는 한다 수레 축제에서는 수레 31대가 다 같이 시청 주변을 행진합니다.